

도,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막바지 준비

고향사랑기부제 조례 공포·답례품 선정위 구성·공급업체 선정, 기금운용심의위 구성·운영 등 사전 준비 마무리 속도↑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전북도는 원활한 제도 추진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지난 4일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사전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에는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과 관련해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 관련 사무 등의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담겼다.

전북도는 7일 농특산품 등 상품 선정 경쟁이 있고, 상품·유통 분야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오는 9일에는 전라북도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어 농특산물 및 기공식품, 농업체 험·관광상품 등 전북의 특색있는 답례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

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10만 원 이내로 기부 시 소득세에서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이 공제된다.

또한 기부액의 30% 이내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가령 개인이 10만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전액 세액을 공제받고, 3만 원 이내의 답례품을 받는다. 10만 원을 기부하고 13만 원

혜택을 받는 셈이다.

전북도에 모인 고향사랑기금은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지역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사용된다.

황철호 도지사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군간 형평성 및 지역 대표성, 소비자 선호도 등을 고려해 기부자에게 감동을 주는 답례품을 선정하겠다"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이 전북도를 살리는 족제비가 될 수 있도록 민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실업크레딧 보험료, 모바일로 납부 가능

국민연금공단, 모바일 전자고지서에서 열람·납부 '원스톱'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지난 1일부터 모바일 전자고지서에서 실업크레딧 연금보험료 납부가 가능해졌다라고 7일 밝혔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최대 1년 간 보험료의 75%(최대 월 47,250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모바일 전자고지서로는 보험료 고지나역 열람만 가능했고 납부는 인터넷으로 모바일뱅킹 등을 따로 이용해야 했다.

앞으로는 모바일 전자고지서에서 <

인터넷전용 납부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납부 화면(인터넷으로 웹페이지)으로 이동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바로 납부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모바일 전자고지 이용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 이용 가능하다.

오는 12월부터는 반납금과 추납보험료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김태현 디지털혁신본부장은 "앞으로도 고객에게 편리함을 주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실현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정읍시-폴란드 스탈로바볼라시-SK넥실리스, MOU 체결

지속 가능한 상생모델 구축…SK넥실리스 국내외 투자지역 지역사회 공헌 활동·교류 협력 공유

정읍시와 폴란드 스탈로바볼라시(市), SK넥실리스가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과 동반 성장을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선다.

정읍시와 폴란드 스탈로바볼라시, SK넥실리스는 7일 SK넥실리스 정읍 본사에서 3자 간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SK넥실리스의 국내외 투자지역인 정읍시와 스탈로바볼라시 간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루치우 슈나드베레즈니 스탈로바볼라시 시장, 이재홍 SK넥실리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도시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은 물론 산업단지 운영 노하우 등을 공유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시와 폴란드 스탈로바볼라시-SK넥실리스는 7일 SK넥실리스 정읍 본사에서 3자 간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또한 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해 3자 모두 동반 성장 기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우리 지역을 방문해 주신 폴란드 스탈로바볼라시 관계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 두 도시가 산업단지 운영과 기업 투자유치 노하우 등을 공유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와 SK넥실리스는 청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청업 중인 청년과 예비 창업가에는 사업장 공간구축과 리모델링, 임차료 등의 청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폴란드 스탈로바볼라시는 SK넥실리스의 유럽지역 생산 거점지역이다. SK넥실리스는 약 56만㎡ 부지에 9,000억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연간 5만t, 7,000톤 규모의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지역보건소 겸사요원, 역량강화 교육

9일까지, 법정감염병 이론·실습 교육 진행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호주)은 김염병 및 집단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감염병 진단분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도내 14개 시·군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김염병 겸사요원을 대상으로 법정감염병 이론 및 실습 교육을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 있다.

주요 교육내용은 코로나19, 에이즈 등 각종 감염병 및 식중독에 대한 이론과 겸체 체취, 관리, 수송 및 검사방법 등이다. 수인성·식품매개질환 검체를 활용해 실제 검사를 진행하는 실습 위주로 교육된다.

이 시·군 보건관련기관 담당자간의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교육을 통해 시·군 보건소 겸사요원이 강화되어 도내 김염병 발생 시 신속 대처 및 확산 방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새만금 배후지역, 비산모래 차단 방재숲 조성

5만 7000여 나무 심어 친환경 공간 조성, 지역주민 상생 노력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비산모래로 인한 새만금 배후지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재숲 조성사업(2차)」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부안군 동진면에서 계화

면까지 총 5.5km(21ha) 구간에 사업비

70.4억 원을 투입해 골술, 꼬리조밥나무,

쥐풀나무, 아끼시나무, 사철나무

등 30여 종 57,000본을 심는 사업이다.

방재숲은 강풍과 비사, 비염 등의 재해를 막기 위해 해안에 조성하는 숲으로, 풍속을 약 70%까지 감소시켜 비산

모래를 차단하는 효과가 매우 크며,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37.6억 원을 투입해 부안군 불등미을에서 비듬치 마을까지 총 3km(13.8ha) 구간에 방재숲(1차)을 조성한 바 있고, 이번이 두 번째 사업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방재숲이 조성되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유진 국제도시과장은 "새만금 사업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국민연금, '예산 절감 아이디어' 대국민 의견 공모

공단 홈페이지 예산 낭비 신고·절감 제안센터에…국민 누구나 제안 가능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예산 절감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를 오는 18일까지 시행하고 있다.

공단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지난 2020년도부터 전 국민 대상의 「예산 절감 아이디어 공모」 분야를 신설해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본 예산 절감 아이디어를 제안받고 있

다.

올해는 기존 우편 및 이메일 접수(npsbo@nps.or.kr) 외에 공단 홈페이지 내 「예산 낭비 신고·절감 제안센터」를 통한 공모도 가능하도록 개선해 국민 참여의 편의성을 더했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예산 절감 수준 및 실효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12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소정의 시례금(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사업운영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및 SNS(국민연금 블로그, 페이스북)

온에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현 이사장은 "국민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공단의 예산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분묘 개장 공고(3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7조 및 같은법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기간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전북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산 242-1/송풍리 1658-1

2. 분묘기수: 1기

3. 개장사유: 소유권 행사

4. 개장방법

(가)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 개장

(나)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5. 안치장소: 전북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산 242-1

6. 안치기간: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8. 신고처(공고인): (주)제이비피씨(010-7767-6531)

9.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분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쪽보, 제작등본 등)를 구비하여 신고

2022년 11월 8일

공고인: (주)제이비피씨

(전북 진안군 용담면 안용로 1196)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